나주시 '영산강 300리 명품 자전거길' 속도

노후 400m 구간 보수 완료…단절구간 연결 내년까지 마무리

나주시가 민선 8기 윤병태 시장의 관광·경제 활성화 분야 공약인 '영산강 300리 명품 자전거길'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달 나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요청에 따라 노면상태가 불량한 영산강 둔치 자전거길 노후 400m구간 보수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수공사는 나주를 관통하는 영산강 둔치 자전거 길 이용객들이 일부 구간 노면 균열과 아스팔트 재료 분리로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위험을 우려해 보수공사를 인수위에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시는 지난달 해당 구간 노면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에 즉각 착수해 이달 1일 완료하고 자전거 길을 개통했다.

이와 함께 담양 용소에서 나주·목포 등을 경유하는 총 133㎞구간 영산강국토종주자전거길에 포함된 나주시 43㎞구간 친수구역 내 불량 자전거길 점검·보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국비 71억 66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양곡교~앙암바위' (1㎞), '느러지전망대' (1.2㎞)에 대한 영산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공사를 내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구간은 하천 제방이 없는 상습 사고 구간으로 자전거길과 연결을 통한 이용객 편의 및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들을 통해 윤 시장이 공약한 '영산강 300리 명품 자전거길' 조성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공약사업은 원도심과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자전거길을 조성, 나주를 대표하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윤 시장은 국비 지원을 통해 자전거 교육, 수리·대여, 동호회 쉼터, 편의시설 등을 갖춘 '자전거 종합지원센터'를 영산포와 죽산보에 구축하고 나주를 영산강 300리 명품 자전거길 종주도시로 도약시킨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승촌보에서 나주대교·공산 다야들 일원 총 9.6㎞길이의 노후 자전거길 노면 정비와 원도심과 혁신도시·영산강과 금성산을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자전거길 정비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나주시 영산강 둔치 자전거길 400m구간의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 완료 모습. 〈나주시 제공〉

윤병태 나주시장은 "영산강 명품 300리 명품 자전거길 조성을 영산강유역행정협의회 7개 시·군과 확대 협의해 공동 상생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편의시설 마련으로 자전거 종주객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경제활성화를 도모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성군 '100원 택시' 전용카드 사용 시작

장성군이 이용자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100원 행복택시' 전용카드 사용을 시작했다.

장성군이 운영중인 100원 행복택시는 마을회관과 버스정류장이 600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100원만 내면 면 소재지까지 택시로 갈 수 있다.

52개 마을 1145명이 100원 행복택시의 혜택을 받는다. 소요되는 예산은 국도비 포함 2억 3000만원 규모다.

기존에는 종이 이용권을 사용했으나, 군은 주민과 택시 종사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전용카드를 발급하고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전용카드는 월 4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매달 1일에 자동 충전된다. 기존에 배부됐던 종이 이용권은 사용할 수 없다.

본인 명의의 전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되며, 분실 시에는 수수료 4000원을 내고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청소년과 노약자, 장애주민 등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으며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엑스포공원, 피서지로 딱이네

물놀이 시설·VR체험장·자동차극장·야간경관 조명 등 다채

함평엑스포공원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함평군은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4·4·8 함평체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문객이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함평엑스포공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19년 이후 운영 중단했던 물놀이장을 다음달 15일(매일 오전 9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휴무)까지 운영한다.

이 곳은 2400㎡ 부지에 파도풀, 어린이풀, 유아풀, 슬라이드풀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늘막, 쉼터, 피크닉 테이블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배달음식 반입이 가능해 매년 여름 가족단위 피서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짜릿한 가상현실을 즐길 수 있는 'VR체험장'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도 인기리에 운영 중이다.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 1층에 지난 4월 개장한 VR체험장에는 롤러코스터, 해저탐험 등 VR(가상현실) 12종, 스크린사격, 축구 등 AR(증강현실) 2종이 마련돼 있다.

아울러 저녁시간 이후 자동차 안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함평 자동차극장도 지역민에게 인기다.

함평 자동차극장은 지난해 1월 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에 개장했으며, 2개 상영관을 운영 중이다. 신작 영화를 매주 개봉, 가족·친구·연인 간 새로운 문화 명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엑스포공원에 조성된 야간경관조명. 아래는 엑스포공원 VR체험장. 〈함평군 제공〉

해질녘 엑스포공원 일원에 켜지는 '야간경관조명' (매일 오후 8시 30분~밤 10시 30분)도 눈길을 끄는 볼거리다. 색색의 빛나는 조명을 통해 낮과는 또 다른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정상우 축제엑스포사업소장은 "함평엑스포공원에서 더위를 피해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고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도 하길 바란다"며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강진군의회 전국 최연소 기초의장 탄생

32세 김보미 의장…유경숙 부의장 등 여성의원 나란히 선출

강진군의회가 9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 의장단을 선출했다.

강진군의회는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김보미 의원(여·32), 부의장에는 같은 당 소속 유경숙 의원(여·46)이 만장일치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강진군의회 최초 여성의원이자 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여성의장 당선을 기록했다. 또 의장, 부의장을 동시에 여성이 차지한 것도 광주·전남 기초의회 사상 최초로 평가받고 있다.

김보미 의장은 제8대 비례대표의원을 시작으로 재선에 성공했고, 제8대 하반기 행정복지위원장을 지냈다. 유경숙 부의장은 비례대표로 초선의원이다.

김보미 의장은 "군민 여러분께서 위임해주신 권한을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행사하여 강진군 의정사에 길이 남을 선진 의회상을 실현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의장 김보미

부의장 유경숙

강진군의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무소속 1명 등 남성 6명 여성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화순군 블랙베리 찰옥수수 출하 시작

화순군이 틈새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블랙베리 찰옥수수 생산과 출하가 시작됐다.

군은 춘양과 도암면 등 11농가가 2㏊ 규모의 실증 재배한 블랙베리 찰옥수수를 백화점 등에 출하한다고 밝혔다.

블랙베리 찰옥수수는 줄기, 잎, 속대까지 흑색을 띠고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기능성 옥수수로 당도가 15° 내외로 맛도 좋아 찰옥수수 집중 출하기에 틈새 소득 작목으로 주목받는 품목이다.

삶아 먹어도 되고 차로 끓여 먹거나 옥수수밥을 해 먹으면 맛도 좋고, 예쁜 빛깔을 체험할 수 있다.

군은 새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작목을 발굴하기 위해 실증사업을 추진, 신품종을 도입해 종자대, 농자재, 재배 기술 매뉴얼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인터넷 판매,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유통업체와 사전 계약재배를 추진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창출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